

산조 가야금

바른 자세와 연주법으로 산조 가야금을 연주할 수 있다.



가야금은 통일 신라의 삼현 중 하나로, 우리나라 대표 현악기이다. 보편적으로 궁중 음악을 연주하는 정악 가야금이 사용되었으나, 조선 후기 민속악의 발달로 빠른 음악과 예술적 기교를 위해 산조 가야금이 사용되었다. 현대에는 다양한 창작곡 연주에 18현, 25현 등의 가야금이 쓰인다.

구조와 바른 자세

좌단
현침

좌단은 오른쪽 무릎 위에 놓고, 왼발은 허벅지 밑으로 가도록 교차하여 앉는다.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왼손을 본다.
왼손은 안쪽의 10~15cm 윗부분 줄에 얹는다.

안쪽
봉미
부들

음역

현의 위치
계이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레	솔	라	레	미	솔	라	시	레	미	솔	라

낮은음 중간음 높은음

연주법

오른손

검지로 뜯는다. 엄지로 뜯는다. 검지로 튕긴다. 검지로 밀고, 엄지로 뜯는다.

왼손

검지와 중지를 줄 위에 얹어 위아래로 흔든다.

중지
검지
엄지

- 가늘게 뜬다.
- 중간으로 뜬다.
- 굵게 뜬다.

1 연습곡을 연주하며 자신의 연주 실력을 키워 보자.

2 바른 자세와 연주법으로 산조 가야금을 연주해 보자.

모두 다 꽃이야

류형선 작사·작곡

산 에 피 어 도 꽃 이 고 들 에 피 어 도 꽃 이 고

길 가 에 피 어 도 꽃 이 고 모 두 다 꽃 이 야

아 무 데 - 나 피 어 도 - 생 긴 대 - 로 피 어 도 -

이 - 름 없 - 이 피 어 도 - - 모 두 다 꽃 이 야 - - -

음악 더하기 거문고

거문고는 가야금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악기이다. 술대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거문고는 우리나라 현악기 중 음역대가 가장 넓으며 음색이 웅장하고 담대하다. 거문고의 여섯 줄 중 세 줄은 16개의 꺾에, 나머지 세 줄은 3개의 안쪽에 받친다.